

## GCF DISPATCH - December

※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dec-2016?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

### 2016년 GCF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확대

녹색기후기금(GCF)은 2016년 완전한 운영체제를 시작했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12월 사모아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8개 신규 사업 승인과 7개 신규 이행기구 인증도 이루어졌다. 이로써 올 한해 승인한 사업의 규모는 총 40억 달러, 약정한 GCF 투자액은 13억 달러 이상이 되었다. 다음의 링크(<http://www.greenclimate.fund/projects/portfolio>)에서 GCF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역량 강화를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투자 결정이 재정 책임성과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GCF 이사회 모든 결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를 통해 제공되는 유엔의 지침을 따른다. COP의 정규지침은 GCF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조언을 제공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

11월 마라케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국 정부는 2016년 GCF가 이뤄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2017년 GCF의 임수 수행을 위한 지침 또한 마련됐다. (관련기사: <https://www.greenclimate.fund/-/cop22-guidance-to-gcf-stresses-progress-made-and-steps-needed-to-implement-paris-agreement?inheritRedirect=true&redirect=%2Fnewsroom%2Fnews>, COP 지침: <http://unfccc.int/resource/docs/2016/cop22/eng/l05.pdf>)

마라케시 회의에서는 GC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파트너, 기업, 정부 관계자가 GCF Dome을 찾아 생각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런 소통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GCF가 믿음직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개선하고 정교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GCF가 100억 달러라는 초기 자본을 분배하는 데에 있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배출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과 투자가 핵심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글로벌 금융계에 “우리 지구의 건강을 계속 무시한 채 가격, 투자 포트폴리오, 시장지표를 생각할 수만은 없다” 도 경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가 수반과 정부 대표들도 이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 두 번의 GCF 이사회 기간 동안에는 하비에르 만자나레스 사무총장 대행이 GCF를 이끌어왔지만, 2017년 1월 10일 임기를 시작하는 하워드 뱀지 신임 사무총장에게 인수인계를 서두르고 있다.

2016년을 마감하며 GCF 모든 파트너, 지지자, 후원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2017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 사모아 15차 이사회

GCF 15차 이사회는 3억1500만달러의 신규 투자 승인과 7개 이행기구 인증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의 중요성은 기후사업 재정지원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열린 이사회라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사모아는 기후변화 영향의 최전선에 있는 군소도서국(SIDS)에 속해 있다. 수도 아피아 회의장에는 사진작가 블라드 소킨의 작품(Warm Waters)이 전시되어 군소도서국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웬 맥도널드 호주 출신 공동의장은 이번 GCF 이사회가 이 지역에서 열린 기후재정회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하며 환영했다. 또 다른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2017년 말 차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공동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아 이사회를 놓쳤다면, GCF 웹사이트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http://www.greenclimate.fund/boardroom/board-meetings/video-recordings?iframeSrc=/b15/events/green-climate-fund-15th-meeting-of-the-board>)

다음 16차 이사회는 2017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GCF 본부가 있는 대한민국 송도에서 열린다.

## 남아프리카, 사우디 아라비아와 공동의장직 바통터치

15차 이사회에서는 2017년 공동의장도 결정됐다. 이웬 맥도널드 공동의장은 연임되었으며, 자히르 파키르 남아프리카 출신의 공동의장은 2016년 한해 동안 GCF가 이룬 성과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1년 임기를 마치기로 했다.

자히르 파키르 후임으로는 2011년부터 사우디 아라비아를 대표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고위 협상가로 활약하고 있는 아이만 샤슬리 이사가 내년도 공동의장직을 맡기로 했다. 샤슬리 공동의장은 주로 에너지 공급,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분야에서 25년 이상 민간부문 경력을 쌓아왔다.

## 투자 흐름, 자원 분배 시작

최근 GCF는 인증기관 두 곳과 자금지원활동협정(FAA)을 체결했다. FAA는 사업 투자 결정을 현지 기후활동에 대한 실제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두 번째 FAA는 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EIF)과 체결했으며,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 및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나미비아 북부 지역의 저소득 농민을 돕는다.

먼저 체결된 FAA는 사모아 이사회 기간 동안 페루 국립공원 보호구역 신탁기금(Profonanpe)과 체결한 것으로, 페루 아마존 유역 산림파괴와 관련하여 감축 적응사업을 지원한다.

## GCF 긴밀한 파트너십 강화

GCF는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 독일원조기관(KfW), 독일 하쓰뱅크(XacBank)와 인증기본협정(AMA)를 체결하는 등 기후재정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하쓰뱅크는 민간기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GCF와 AMA를 맺었다.

지난 달 마라케시 COP에서는 중남미개발은행(CAF)이 다자개발은행으로는 처음으로 AMA를 체결함으로써 중남미 지역에서 저배출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시행에 녹색 신호등이 켜졌다.

AMA는 GCF 자원 분배에 대해 GCF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기본조건을 정해놓은 핵심문서이다. 현재까지 총 17개 인증기구가 AMA를 체결했다.

## 중남미 지역 모임

15차 이사회 개최 며칠 전 GCF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첫 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 11월 말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3일간 열린 워크숍에는 80명 이상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GCF 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고, 기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GCF 능력배양 자금지원

COP에서 발표한 최신 GCF 지침에는 GCF 기후재원 활용을 위해 개도국의 직접접근 제안서를 늘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독일국제협력공사(GIZ)와 능력배양기본협정(Readiness Framework Agreements)를 새롭게 체결했다.

협정체결로 4개 기관은 능력배양 지원을 통해 개도국과 GCF간의 협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책임성 강화

GCF는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약속하며 3개의 독립부서를 설립,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적인 관행 조짐을 추적하기로 했다.

독립청렴부서(Independent Integrity Unit)는 사기부패 혐의를 조사한다. 부서장으로는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일했던 이브라힘 팜이 최근 임명되었다.

전 스리랑카 법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라라나쓰 드 실바는 독립시정메커니즘(Independent Redress Mechanism) 부서장으로 임명되었다. GCF 자금지원을 받는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과 지역사회에서 비롯되는 불만을 처리한다.

GCF 독립시정메커니즘 업무내용을 담은 문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2017년 4월 16차 이사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검토과정은 공개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검토 내용은 기관별로 2017년 1월 20일 전에 제출하면 된다.

GCF 독립평가부서(Independent Evaluation Unit) 부서장은 곧 채용 예정이며, GCF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교훈을 공유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 GCF 특권면제 협정

사모아 정부가 GCF와 특권면제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주어지는 면제는 타 국제기구 및 UN 체제에서 적용되는 수준이다.

이제까지 9개 국가가 GCF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중 4개 국은 사모아,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 군소도서국(SIDS)에 속해 있다.

하비에 만자나레스 GCF 사무총장 대행은 GCF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특권면제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UNFCCC COP은 각 국에 GCF와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특권면제를 신속하게 부여하라는 권고한 바 있다.

## GCF 인증 자가진단 툴

GCF 지금 지원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인증기관 자격 요건 평가를 해보기를 권한다. 인증 자가진단 툴(Accreditation Self-Assessment Tool)은 일련의 질문을 통해 인증과정을 개시 준비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reenclimate.fund/partners/accredited-entities/self-assessment-tool>)